

제목	참을 수 없는 야구장의 맛 — 먹으러 야구장 가는 사람들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학과	의학과
학 번	2025****	이 름	한**

플레이볼! —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야구는 인생과 닮았다. 인생처럼 야구에도 실패가 더 많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문장을 꽤 좋아한다. 실제로 야구는 실패의 스포츠이다. 10번 중 3번만 성공해도 훌륭한 타자가 되고, 마운드의 에이스조차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리하여 야구팬들은 본질적으로 패배에 익숙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어이 야구장을 찾는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당장 내일이 전공 시험 기간이어도, 다음 날 아침 1교시 수업이 대기하고 있어도 유니폼을 챙겨 입고 야구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야구장 가는 날이면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치는 것은 야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의 ‘야구 푸드’이다.

“오늘 새내에서 깻잎닭강정 사 가야지.”

“사직이니 와인슬러거 무조건.”

“광주 가는 길에 창억떡 들러서 갈까?”

솔직히 직관의 절반은 먹부림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2%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직관 음식 1위로 단연 ‘치킨’을 꼽았을 만큼, 야구장과 음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이다. 생각해보면 야구는 음식을 섭취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진 스포츠이다. 축구처럼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골이 터지는 종목도 아니며, 농구처럼 1초마다 분위기가 바뀌며 숨을 조이지도 않는다. 투수 교체 한 번, 견제구 두 번, 비디오 판독 한 번이 선언되면 그 공백 사이에 새우튀김만두 세 개를 해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 5회 말 끝난 뒤의 클리닝 타임은 공식적인 간식 시간이고, 갑작스러운 우천 중단은 본격적인 야식 타임으로 변모한다.

그리하여 야구장에는 늘 다채로운 음식 냄새가 가득하다. 치킨과 닭강정의 기름진 향, 방금 막 따라내어 하얀 거품이 이는 생맥주 냄새, 매콤한 떡볶이와 피자 향, 그리고 한여름 태양에 뜨겁게 달궈진 플라스틱 의자의 공기까지 한데 뒤섞여 고유의 점성을 형성한다. 나는 그 냄새를 따라 직관을 간다. 직관을 다녀온 날이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역시, 귀를 맴도는 응원가와 옷자락에 희미하게 배어 있는 음식 향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1회 말 — 고척 스카이돔: 에어컨 바람 아래 펼쳐지는 미식의 서막

대한민국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은 날씨의 제약으로부터 완벽히 해방된 공간이다. 밖은 섭씨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나 장대비가 쏟아질지라도, 돔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미식의 세계가 열린다. 기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먹는 행위와 경기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셈이다.

고척돔의 핵심은 단연 구장 인근에서 포장해 오는 외가 요리들의 향연이다. 개봉역과 구일역 일대에서 들고 오는 크림새우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는 고척돔 복도를 가득 채우는 시그니처 향취이다. 탱글한 새우 살을 씹으며 키움 히어로즈의 빠른 기동력 야구를 보고 있으면, 시각과 미각이 동시에 충족되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돔구장 특유의 밀폐된 공기 속에 퍼지는 맛있는 냄새는,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오직 야구와 음식에만 미쳐 있는 인간들의 해방구를 연상시킨다.

3회 초 — 잠실야구장: '먹산'이 증명하는 거대한 푸드코트

잠실야구장은 공간의 목적성이 주객전도된 대표적인 장소이다. 분명 경기장은 야구를 관람하라고 조성된 곳이지만, 막상 관중석에 앉아보면 모두가 먹는 행위에 비정상적일 만큼 진심을 다하고 있다. 특히 두산 베어스 팬들이 구축한 '먹산' 문화는 이미 야구계의 전설이다. 좌석은 매진되지 않았으나 음식은 매진되었다거나, 잠실역 인근 편의점의 매대가 전멸하고 오직 컵라면만 남았다는 일화, 원정 경기장으로 대거 이동하여 해당 지역 맛집의 재료를 조기 소진시켰다는 무용담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먹거리 맛집 1위 구장'으로 잠실을 꼽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잠실새내역 근처 새마을시장은 각자 응원하는 팀 유니폼을 입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양손에는 갓익닭강정과 파오파오 만두가 들려 있고, 누군가는 잭슨피자 박스를 품에 안은 채 질주하며, 또 다른 이는 마라상귀를 포장해 온다. 심지어 야구장 게이트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기다리는 관중들의 눈빛은 경기 자체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매섭다. 서울시 방침으로 구장 내 주류 반입은 제한되지만 외부 음식 반입은 허용되다 보니, 시장 상권이 사실상의 야구장 거대 부역 역할을 하게 된 구조적 배경 덕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양손 가득 든든하게 무장한 채 관중석에 입성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닝별 미식 코스 요리'가 시작된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3시간을 꼬박 넘기는 대장정인데다 공수 교대라는 쉬는 시간까지 보장되어 있어, 지칠 틈 없이 음식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3회쯤 되면 응원 가사 사이에 자연스럽게

간식 주머니를 열고, 5회 클리닝 타임에는 시원한 커피로 수혈을 하며, 7회 초가 넘어가면 서로 눈빛만 봐도 '우리 이제 슬슬 다음 메뉴를 꺼내볼까?' 하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쯤 되면 야구장에 경기를 보러 온 것인지, 탁 트인 야외에서 활기찬 응원가를 배경음악 삼아 코스 요리를 즐기러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특히 잠실의 김치말이국수는 여름 직관의 빼놓을 수 없는 상징 같은 존재이다. 무더운 띄약별 아래서 땀을 흘리며 육성 응원을 하다가, 3층 매점에서 살얼음 띄운 차가운 국물을 들이키는 순간 심부 체온과 누적된 피로감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느낌이 든다. 그 순간만큼은 방금 허무하게 병살타를 치고 들어온 타자조차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쩌면 김치말이국수는 팬들의 체온 조절과 컨디션 유지에 관여하는 존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처럼 '끝없이 먹어 치운다' 문화는 야구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소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함께 직관에 간 친구와 치킨을 나눠 먹고, 처음 본 옆자리 사람이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물어보시면 즉각적으로 맛집 정보 공유하는 것. 처음 보는 사람과도 후토마끼 이야기로 웃고, 어느 구장 김치말이국수가 제일 시원하게 나오는지도 토론하게 된다. 낯선 사람이어도 같은 팀 유니폼 하나만 입고 있으면 금방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음식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쉬운 언어이며, 야구팬들은 그렇게 유대감을 쌓아가는 듯하다.

이 날 외야석에서 직관을 하다가 뒷줄에 앉아 계셨던 한화팬 두 분과 자연스럽게 맛집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다. 친구들과 브이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엄지를 올려 유쾌하게 함께 찍혀주신 것이 계기가 됐다. 덕분에 종합운동장 근처 맛집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며 웃었다.

야구장은 원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금방 같은 일행처럼 만들어버리는 곳이다.

4회 말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떡지순례'로 이어지는 홈런포의 맛

원정의 묘미를 논할 때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최근 야구팬들 사이에서 광주는 야구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이른바 '떡지순례'를 떠나는 미식 투어 코스로 굳어졌다. 그 중심에는 1965년 개업해 광주의 향토 맛집으로 자리 잡은 '창억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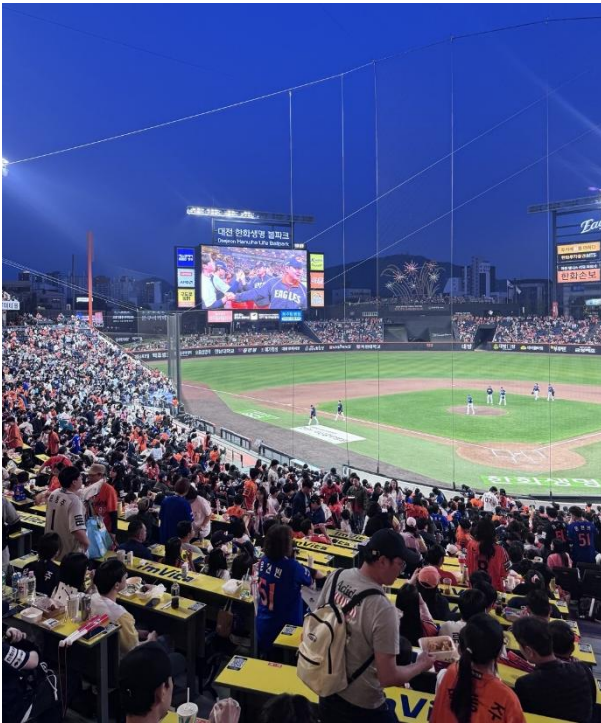
이 집의 시그니처인 단호박인절미는 노란 호박 떡에 고소하고 달콤한 카스텔라 가루가 버무려져 있는데, 한 입 씹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쫄득함과 달콤함의 조화가 가히 환상적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바이럴을 타고 '광주=호박인절미'라는 공식이 전국 야구팬들 사이에 각인되면서, 주말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구장 인근 본점 앞에 유니폼을 입은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나 역시 스토브리그 기간이나 광주 원정 때 기어코 이 떡을 맛보겠다고 한 시간 줄 서며 땀을 흘렸던 기억이 선한데, 고생 끝에 관중석에 앉아 인절미 한 입을 베어 물고 KIA 타이거즈의 홈런포를 바라볼 때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역의 오래된 전통 상권이 팬덤 문화와 결합하여 어떻게 구장의 정체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겨운 사례가

아닐까 싶다.

5회 클리닝 타임 —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한화 팬의 청춘은 성심당에

나는 한화이글스 팬이다. 이 한 문장으로 내 야구 인생의 요약은 끝난다. 예전의 한화 팬들이 상처와 보살의 대명사였다면,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작년 당당하게 정규시즌 2위를 찍고 가을야구 마운드를 호령하며 대전 전체를 용광로로 만들었던 그 짜릿한 기억이 여전히 온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봄은 허무한 행복회로가 아니라 정상 정복을 향한 당당한 질주이며, 다음 시즌 유니폼을 결제하는 손길에는 우승을 향한 염원이 가득 차 있다. 작년의 그 뜨거웠던 가을을 기점으로, 우리의 야구는 매 순간이 축제이자 자부심 그 자체가 되었다.

대전 홈경기가 있는 날은 루틴이 확실하다. 대전으로 가는 SRT 안에서 오늘 선발 라인업과 문동주 구속부터 체크하고, 대전역에 내리자마자 빵의 성지 성심당으로 전력 질주한다. 이제 대전 직관의 대세는 클래식한 튀김소보로나 부추빵을 넘어섰다. 성심당 케익부띠고 앞을 3-4시간 웨이팅 줄로 만드는 망고시루와 딸기시루, 혹은 들고 먹기 편하게 나온 떠먹는 시루 컵케이크까지 보냉백에 든든하게 챙겨야 직관 갈 준비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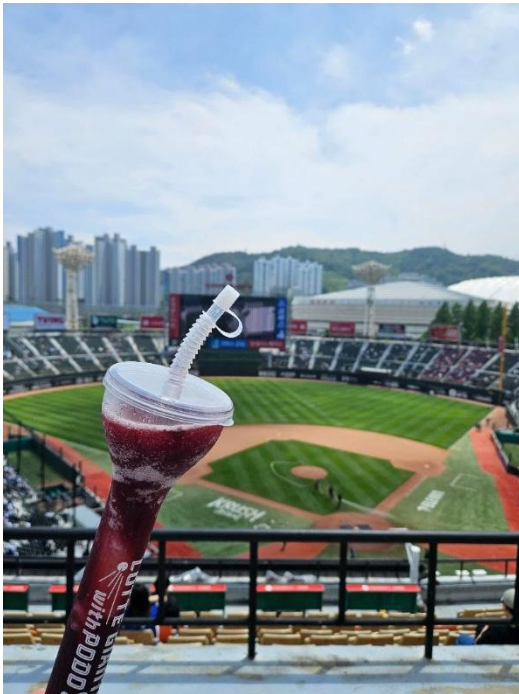
성심당 박스를 양손 가득 들고 마주한 한화의 새로운 안방, 한화생명볼파크는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다. 나에게 가장 감격적이었던 건 몰라보게 넓어진 좌석 간격이다. 앞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무릎을 펴고 앉아 무려 '야구장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떠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널찍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스푼 가득 딸기 케이크를 떠 넣는 맛은 잊을 수 없다. 아무리 작년 2위 팀이라도 야구라는 게 매년 이길 수는 없는 법, 가끔 불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연속 볼넷을 내주며 삐끗할 때조차도 넓은 좌석에서 성심당이 내주는 당 충전을 하고 있으면 속타는 마음이 이내 진정된다.

안타가 터지면 손가락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위기 상황에는 핫김에 케이크를 크게 한 입 퍼먹는 한화 팬들의 모습은 새 구장이 만들어낸 도파민 수혈의 광경이다.

야구장 음식은 끼니를 때우는 간식만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 그 자체이다.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속 터져서 달달한 디저트를 갈구하고, 적시타가 터지면 축제의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며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는 법이니까. 훗날 내가 치열했던 한 경기의 점수판은 잊어버릴지언정, 넓고 쾌적한 한화생명볼파크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손가락을 부딪치며 즐겼던 성심당 케이크의 맛과 그날의 공기는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7회 말 — 사직야구장: 용광로의 열기와 와인슬러거의 낭만

글의 대미를 장식할 곳은 단연 부산 사직야구장이다. 사직의 야구는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선 일종의 거대한 축제이자 문화에 가깝다. 처음 사직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관중들의 목소리였다. 흔히 지역 특유의 억양과 발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문화가 있어서인지, 응원가 때가 시작되는 순간 구장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실제로 귀가 멍멍해질 만큼 소리가 컸고, 야구장을 넘어 거대한 콘서트장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분에 가까웠다. 같은 응원가라도 지역마다 분위기와 에너지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난다는 점이 야구 원정의 재미인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며 응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배가 고파지기 마련이다. 사직구장은 구단으로컬 상권 및 팬덤 문화와 전략적으로 협업하여 먹거리 생태계를 다채롭게 구축한 대표적인 구장이다. 부산의 '포도와 베이커스'가 개발한 사직 한정 와인슬러거는 진짜 만든 사람은 평생 복 받아야 한다고 매년 나와 친구들과 입을 모아 칭찬한다. 자이언츠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토네이도 병에 담겨 나오는 독보적인 비주얼은 직관을 같이 간 롯데 팬 친구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그래서 사직에 갈 때면 우리는 늘 와인슬러거를 마신 뒤, 깨끗하게 비워낸 그 귀한 병을 친구에게 양도하는 훈훈한 의식을 치르곤 한다. 타 팀 팬인 내가 사직의 시그니처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과, 로컬 구단의 굿즈를 수집하는 친구의 행복을 와인슬러거 한 병을 통해 모두 누리는 셈이다.

부산의 습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 차갑고 달달한 와인슬러거 한 입 마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여기에 비공식 별미로 뜨고 있는 두툼한 부산 스타일 후토마키나 버거샵의 수제버거까지 곁들이면 행복 그 자체이다. QR 주문으로 음식을 간편하게 받아 챙기는 스마트한 인프라까지 갖췄으니 먹부림에 막힘이 없다. 심지어 후반까지 팽팽하게 가던 동점 상황에서 불펜이 흔들리며 역전을 허용한 날조차도, 우리는 "그래도 와인슬러거 맛있었다..." 하며 터덜터덜 집에 돌아간다. 어쩌면 직관의 기억은 승요냐 패요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공기와 열기, 그리고 끝내 먹고 웃었던 음식의 맛까지 함께 저장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야구팬들이 흥미로운 건 바로 이런 점이다. 분명 경기 보면서 화도 엄청 낸다. 삼진 먹으면 아쉬워하고, 수비 실책 나오면 탄식하고, 감독 교체 타이밍을 가지고 친구들과 밤새 토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아 근데 진짜 재밌었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그리고 그 재미 안에는 늘 음식이 있다. 학자들이 야구장을 두고 '응원 문화와 스포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이라 부르는 이유를, 우리는 매 주말 위장으로 직접 증명해 내고 있는 셈이다.

9회 말 2아웃 — 결국 우리는 이 도파민을 먹으러 간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명언은 경기 스코어판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직관러들의 하루 역시 9회 말 쓰리아웃 불이 켜진다고 해서 허무하게 막을 내리지 않는다. 야구장 밖으로 걸어 나와 끊임없이 오늘의 명장면을 복기하며 나누는 뒷풀이, 원정길 SRT 안에서 서로 에어드롭으로 주고받는 직관 인증샷, 그리고 톡방에서 다음 직관 예매 스케줄을 잡기 위해 또다시 대기열을 기다리는 그 모든 연장전의 과정이 전부 야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야구장에 단순히 공이 오가는 경기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분출하는 특유의 축제 분위기와 '도파민'을 온몸으로 수혈하러 가는 듯하다. 처음 보는 옆자리 사람과 응원타월을 흔들며 나누는 하이파이브, 마운드가 흔들릴 때마다 성심당 케이크나 와인슬러거로 확실한 당 충전을 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눈빛. 이 유쾌한 기억들은 훗날 우리가 치열했던 점수나 타율은 잊어버릴지언정, 그날의 왁자지껄한 온도와 끝내 함께 웃으며 해치웠던 음식의 맛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특히 대학생에게 야구장이란 전공 시험 기간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팍팍한 고민을 잠시 외야석 한구석에 던져두고, 온전히 현재의 행복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허락된 청춘의 해방구이다. 그리고 그 청춘의 냄새는 야구장 관중석 곳곳에서 풍겨오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소름 돋을 정도로 짙아 있다. 우리 팀이 이기면 승리의 도파민을 안주 삼아 축제를 즐겨서 좋고, 설령 지더라도 양손 가득 쥔 맛있는 먹거리와 내 빈 병까지 챙겨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우리의 직관은 언제나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셈이다.

오늘도 유니폼 단추를 만지며 다음 원정 리스트를 짜는 내 마음은 벌써부터 설렘으로 가득하다. 경기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마주할 그 농밀한 음식 내음과 함성 소리를 기대하며, 나는 또 한번 위장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운 채 초록빛 그라운드를 향해 기꺼이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한다. '우리 팀이 이기면 더할 나위 없는 축제고, 설령 지더라도 오늘의 미식 투어는 성공이니까.' 이 든든하고도 초탈한 마인드로, 이번 주말에 유니폼 가볍게 챙겨 입고 야구장으로 향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에세이에 사용된 모든 사진과 이미지 자료는 작성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별도의 외부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